

#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1주~7월 2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1. 프로젝트 정보

- [철도인프라] 자카르타 LRT Velodrome-Manggarai 노선, '26년 8월 개통 예정<sup>1)</sup> (Ekonomi, 6/21)
  - 자카르타 Pramono Anung 주지사는 자카르타 LRT Velodrome-Manggarai 노선이 '26년 8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힘. 자카르타 주정부는 약 7억불(12.5tril IDR)을 투입해 Velodrome-Manggarai 구간과 11개 역을 건설 중
  - 또한 Jakarta LRT를 Dukuh Atas까지 연장해 Jabodebek LRT와 연계할 계획이며, MRT · LRT · KRL · TransJakarta · 공항철도 등 6개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TOD<sup>2)</sup>)도 추진 중. 사업 완료시 Kelapa Gading-Manggarai 이동시간은 약 28분으로 단축될 전망
  - 한편 Velodrome-Manggarai 1B단계 사업은 약 3억불(5.5tril IDR), Dukuh Atas 연장사업은 약 1.5억불(2.7tril IDR) 규모로 추진 중. 두 사업 모두 자카르타 지방정부 예산(APBD<sup>3)</sup>)을 통해 전액 조달 중
- [인프라 공공사업부, 말루쿠 Way Apu 댐 건설 가속화<sup>4)</sup> (Ekonomi, 6/21)
  - 공공사업부(PU)는 말루쿠주 Buru 지역에서 추진 중인 Way Apu 댐 건설사업의 공정률이 86.91%에 도달했다고 밝힘. 공공사업부 Dody Hanggodo 장관은 동 사업이 안정적인 수자원 인프라 구축과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동 사업은 국가전략사업(PSN)의 일환으로, 10,562ha 규모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해 동부 인도네시아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지원할 전망.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21/98/1982177/proyek-lrt-velodrome-manggarai-hampir-rampung-diresmikan-agustus-2026>

2)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3) APBD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Daerah) : 지방정부 예산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21/45/1982182/kementerian-pu-kebut-proyek-bendungan-pertama-di-maluku-begini-progresnya>

또한 총 저수용량 5,005만<sup>3</sup> 규모로 조성되며 초당 0.55<sup>3</sup>의 생활·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

- 아울러 하류 지역 홍수 유량을 초당 최대 394<sup>3</sup>까지 저감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 정부는 댐 주변 관광시설과 전망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

○ [인프라] BPI, Meikarta 기부 부지에 공공분양 임대주택 건설 추진<sup>5)</sup>(Kompas, 6/29)

- Danantara 투자관리청(BPI)은 서부자바주 브카시 Meikarta 내 30ha 규모의 기부부지에 저소득층(MBR) 대상 공공분양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 BPI Rosan Roeslani 청장은 Danantara Housing을 통해 금융권과 협력,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
- Rosan 청장은 관계기관과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고려한 분양가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 한편 주택 및 정착지역부(PKP) Maruarar Sirait 장관은 PKP가 제도·정책을, Danantara가 건설과 금융을 담당하며, PT Lippo Cikarang이 기부한 3개 부지(총 30ha)를 활용해 약 14만 1,000호의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프라] BPI, Meikarta 기부 부지에 14만 1,000호 주택 건설 추진<sup>6)</sup>(Bisnis, 6/30)

- Danantara 투자관리청(BPI)은 Meikarta 30ha 규모의 기부 부지에 14만 1,000호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Danantara BPI Rosan Roeslani 청장은 동 사업이 Prabowo 대통령의 300만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5년 인구조사 기준 940만호에 달하는 주택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Rosan 청장은 동 사업을 통해 약 50만~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5) <https://money.kompas.com/read/2026/06/29/210125426/akan-bangun-rusun-subsidi-di-lahan-hibah-meikarta-danantara-siapkan-skema>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5/45/1978749/kementerian-pu-ungkap-kelanjutan-proyek-tid-getaci-hingga-giliranuk-mengwi#goo\\_rewarded](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5/45/1978749/kementerian-pu-ungkap-kelanjutan-proyek-tid-getaci-hingga-giliranuk-mengwi#goo_rewarded)

아울러 Danantara는 국영은행협회(Himbara<sup>7)</sup>)를 통한 주택구입자금 지원과 최장 40년 만기의 주택구입 대출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

○ [철도인프라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연장, Whoosh 재무구조 개선 결과에 따라 결정<sup>8)</sup>](Bisnis, 6/29)

- 교통부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재무구조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Whoosh의 수라바야 및 바뉴왕이(Banyuwangi)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 현재 정부는 KCJB의 재무구조 개선을 우선 추진 중
- 교통부 Allan Tandiono 철도국장은 해당 방침이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 장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 결과가 노선 연장 타당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앞서 Agus 장관은 KCJB 운영사인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KCIC)의 구조개선과 동부 자바 연장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며, 재무부 및 Danantara와 바뉴왕이 연장 계획을 협의 중

##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기관] PLN·Jababeka Morotai, 투자·관광 지원 위한 전력 인프라 협력 강화<sup>9)</sup>](Antara, 6/22)

- PT PLN Tobelo 고객센터지사는 Morotai섬 투자·관광 개발 및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PT Jababeka Morotai와 협력 방안을 협의. 이번 방문은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전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
- PLN Maluku·북말루쿠 지역본부(UIW) Noer Soeratmoko 본부장은 전력 인프라가 투자 유치와 전략지역 개발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 또한 PLN은 투자 확대와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중
- Morotai섬은 관광산업과 동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평가. 양측은 단계별 개발계획과 전력 수요 전망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내용은

7) Himbara (Himpunan Bank Milik Negara) : 국영은행협회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29/98/1983984/nasib-kereta-cepat-jakarta-surabaya-tergantung-restrukturisasi-whoosh>

9) <https://antoran.antaranews.com/amp/berita/333505/pln-dan-jababeka-morotai-pakuat-sinergi-siapkan-infrastruktur-listrik-dukung-investasi-dan-pariwisata>

향후 전력 공급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

○ [국부펀드] Danantara, 국영호텔 InJourney 산하로 통합 추진<sup>10)</sup>(Antara, 6/27)

- Danantara는 국영 관광지주회사 InJourney를 중심으로 국영호텔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힘. 국영호텔 45곳은 자산 통합 1단계 착수를 위해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는 최종적으로 최대 120개 국영호텔을 InJourney 산하로 통합해 인도네시아 제2위 호텔 운영사로 육성할 계획
- BP BUMN<sup>11)</sup> 청장 겸 Danantara 최고운영책임자(COO) Dony Oskaria는 이번 통합이 국가 호텔산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단계로, 재무적 건전성과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
- 통합 대상 호텔 자산은 향후 PT Hotel Indonesia Natour가 InJourney Hospitality로 브랜드를 변경해 일괄 관리할 예정이며, Danantara는 100개 이상 호텔 통합 이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도 추진할 계획

### 3. 정부 정책동향

○ 인니, 경제성장 견인 위한 원전 도입 추진<sup>12)</sup>(Antara, 6/24)

- 국가에너지위원회(DEN)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DEN Sripeni Inten Cahyani 위원은 세계적인 원전 확대 흐름에 맞춰 인도네시아도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
- 다만 DEN에 따르면 원전 도입에 대한 국민 찬성도는 39%로, 원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인니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 Sripeni 위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와 최신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
- 한편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전국 28개 원전 후보지 중 3개 지역에

10) <https://en.antaranews.com/news/420631/indonesias-danantara-merges-state-hotels-under-injourney-umbrella>

11) BP BUMN (Badan Pengelola Badan Usaha Milik Negara) : 국영기업 관리청

12) <https://en.antaranews.com/news/420631/indonesias-danantara-merges-state-hotels-under-injourney-umbrella>

대한 평가를 완료하며 도입 준비를 추진 중

○ 인니, 런던 GETES서 에너지 전환 이행 의지 재확인<sup>13)</sup>(Antara, 6/24)

- 환경부 Moh Jumhur Hidayat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전기화 및 에너지전환 정상회의(GETES)에서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 또한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유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
- Hidayat 장관은 열대우림과 이탄지, 맹그로브 생태계 보호를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 UN 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
- 이에 Hidayat 장관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를 추진할 방침

○ 인니 정부, Bitung 데이터센터 투자 거점 육성 추진<sup>14)</sup>(Kompas, 6/24)

- 경제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은 북술라웨시 Bitung시를 새로운 데이터센터 투자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해저케이블 접속거점과 산업단지를 활용해 자바, 바탐, 빈탄에 이은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
- Airlangga 장관은 Bitung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입지와 글로벌 경제 거점과의 우수한 디지털 연결성,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점으로 제시
- 정부는 현재 약 640MW 수준인 데이터센터 용량이 향후 1.6GW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신규 용량은 자바섬에 구축될 예정

13) <https://en.antaranews.com/news/420359/ri-reaffirms-commitment-to-energy-transition-at-gtes-in-london>

14) <https://money.kompas.com/read/2026/06/24/190647426/pemerintah-lirik-bitung-jadi-lokasi-baru-investasi-data-center-indonesia>

○ 인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약 1,210억불 투자 기회 제공<sup>15)</sup>(Kompas, 6/24)

- 정부는 국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 1,210억불 (Rp1,975tril) 규모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
- 투자 및 다운스트림산업부(BKPM) Ahmad Faisal Suralaga 다운스트림 전략·거버넌스 국장은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 6종 가운데 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니켈 자원의 약 42%를 보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정부는 첨단 제련소와 배터리 소재·셀 제조, 배터리 조립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45년 세계 5대 전기차 생산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 중

○ AIIB, 약 170억불(Rp303.1tril) 프로젝트 금융 지원 후 인니 대표사무소 개설 추진<sup>16)</sup>(Antara, 6/26)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약 170억불(Rp303.1tril)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합의, 인도네시아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계획. 재무부 Purbaya Yudhi Sadewa 장관은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 정부가 부지 및 건물을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
- Purbaya 장관은 위 자금이 일반적인 국가채무가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인프라 개발 지원 목적의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강조 또한 정부가 제안한 사업의 준비 및 추진 상황에 맞춰 '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AIIB 대표사무소 개설을 통해 사업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니 정부, 글로벌 리스크에도 경제 기초여건 안정세 유지 평가<sup>17)</sup>(Antara, 6/29)

- 경제조정부 Susiwiyono Moegiarso 사무차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거시경제 지표와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기초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15) <https://money.kompas.com/read/2026/06/24/145440526/indonesia-tawarkan-peluang-investasi-baterai-ev-rp-1975-triliun>

16) <https://en.antaranews.com/news/420593/aiib-to-open-indonesia-office-after-securing-us17-billion-financing>

17) <https://en.antaranews.com/news/420755/indonesias-economy-remains-resilient-amid-global-risks-govt>



있다고 평가. '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5.61%, 5월 물가상승률은 3.08%를 기록했다고 설명

- 또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으로 확장 국면에 재진입, 외환보유액은 약 1,449억불(Rp2,583.9tril)로 수입대금 5.6개월분, '26년 1분기 투자실현액은 약 280억불(Rp500tril)을 기록. 정부는 규제완화와 투자 애로 해소,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육성, 산업 고부가가치화,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Bappenas, 에너지 전환은 Indonesia Emas 2045 비전 실현의 핵심<sup>18)</sup>(Antara, 6/29)

-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Rachmat Pambudy 장관은 에너지 전환이 인도네시아 황금 2045(Indonesia Emas 2045) 비전 실현의 핵심으로, 경제·고용구조 전환을 수반할 것이라고 강조. Bappenas와 GIZ<sup>19)</sup> 인도네시아·아세안 에너지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동 발간
-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Leonardo A.A. Teguh Sambodo 식량·천연자원·환경 담당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에너지 소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경제 전환, 산업 발전, 에너지 안보, 지역균형 발전 및 신규 성장동력 창출을 포함하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청정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

#### 4. 녹색산업 동향

○ 인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6년 목표 조기 달성<sup>20)</sup>(Antara, 6/21)

-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6년 4월 기준 17.89%(29.62TWh)를 기록하며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6.46%를 조기 달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년

18) <https://en.antaranews.com/news/420781/energy-transition-key-to-golden-indonesia-2045-vision-bappenas>

19)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 독일국제협력공사

20) <https://en.antaranews.com/news/419901/indonesias-renewable-energy-mix-gains-pace-beats-2026-target>

14.65%에서 '25년 15.75%로 상승한 데 이어 '26년 들어 4개월 만에 2%p 이상 확대됨

- 이 같은 성과는 대형 수력발전소 가동 확대, 디젤발전소 조기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기인. 특히 PLN의 '25~'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에서는 신규 발전설비의 약 76%가 신재생에너지원에 배정됐으며, 수마트라는 발전량의 41.7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전국을 선도.
- 한편 수력발전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 정부는 지열발전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금 조달, 송전 인프라 확충 및 석탄 의존도 축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

#### ○ 인니,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sup>21)</sup>(Brin, 6/22)

-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태양광발전(PV)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워크숍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부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BRIN은 연구가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제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는 약 3,31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6년 4월 기준 활용 규모는 약 1.4GW에 불과.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34년 17.1GW, '60년 266.3GW까지 확대되고, 약 34GW 규모의 에너지저장설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국내 제조역량 부족 및 에너지관리체계 고도화는 주요 과제로 지목. BRIN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연구·기술·정책 연계와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 Pertamina NRE · 인니 협동조합부, 바탐에 태양광발전소 구축<sup>22)</sup>(Hijau, 6/25)

- Pertamina New & Renewable Energy(Pertamina NRE)는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와 협력해 리아우제도 바탐 Sembur Laut섬에 Merah Putih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를 구축 중. 인도네시아 최초의 협동조합 기반 태양광발전소로, 협동조합이

21) <https://brin.go.id/en/news/128865/evidence-based-policy-key-to-accelerating-indonesias-energy-transition>

22) <https://hijau.bisnis.com/read/20260625/652/1983177/pertamina-nre-dan-kemenkop-bangun-plts-kopdes-merah-putih-di-pulau-sembur-batam>



운영을 맡아 수익을 조합원과 주민에게 환원할 계획

- Pertamina NRE 대외협력실장 Nur Hidayati는 현재 공정률이 약 80%이며,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현재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는 Sembur섬에는 전력 배전망과 배터리 시스템, 5톤 규모 냉동창고 및 2톤 규모 제빙시설을 구축 중이며, '26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 인니,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확대 추진, 미개발 사업 480여 개<sup>23)</sup>(6/30, Jakartaglobe)

- 환경부 Jumhur Hidayat 장관은 현재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이 70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약 480개 시·군의 개발 여력이 남아 있다며, 관련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또한 Danantara가 50억불 (Rp89.2tril)을 배정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9개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
- 폐기물은 폐기물 고형연료(RDF), 디젤연료, 바이오매스 연료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PLN<sup>24)</sup>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할 방침. Jumhur 장관은 폐기물 유래 에너지 수요 확대를 통해 신규 투자와 청정도시 조성, 녹색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인니 신수도청, 한국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금 650만불 확보<sup>25)</sup> (Ekonomi, 6/21)
  - 신수도청(OIKN)은 한국 정부로부터 신수도(IKN)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을 위한 약 650만불(115.9bil IDR) 규모의 무상원조를 확보. OIKN Basuki Hadimuljono 청장은 해당 자금이 핵심정부구역 (KIPP)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SCCC)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
  - SCCC는 지난주 동칼리만탄에서 착공됐으며, 전체 지원금 중

23) <https://jakartaglobe.id/news/indonesia-eyes-wastetoenergy-boom-with-hundreds-of-projects-still-untapped>

24) PLN (Perusahaan Listrik Negara) : 국영전력공사

2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21/45/1982178/ikn-dapat-kucuran-rp11594-miliar-dari-korsel-untuk-proyek-smart-city>

약 361만불(64.4bil IDR)이 건축 공사에 배정됨. 연면적 1,098m<sup>2</sup> 규모의 2층 건물로 조성되며 관제센터, 기술전시관, AI·로보틱스 연구실 등이 들어설 예정

- 또한 한국 국토교통부의 지원금은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빌딩 운영체계 구축에도 활용될 계획. OIKN은 약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 이집트, 인니 신수도 개발 협력 지원 의사 표명<sup>26)</sup>(ONC Indonesia, 6/25)

- 주인도네시아 Yasser Hassan Farag Elshemy 이집트 대사는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OIKN) 개발 지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이집트 정부는 신수도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이집트는 약 580억불(Rp1,042tril)을 투입해 카이로 동쪽 약 45km, 약 7만1,400ha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약 10년에 걸쳐 조성. 해당 신도시는 카이로의 과밀 해소와 정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해 개발됐으며, 현재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 중
- 또한 인도네시아와 이집트는 신수도 개발 관련 협의를 지속, '25년 4월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계기로 경제·무역·투자·교육·국방·문화·인적교류 등 협력을 확대

#### - PT Elnusa, OIKN 에너지 공급 지원 연료터미널 건설 추진<sup>27)</sup>(Businesspost, 6/24)

- PT Elnusa Tbk는 동칼리만탄 Palaran 통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주관사로 선정, 동 사업은 신수도(OIKN)의 에너지 안보 및 연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추진. PT Pertamina Patra Niaga가 운영하는 동 사업은 약 65억불(Rp116tril) 규모의 정부 제2단계 전략적 다운스트림 투자사업의 일환
- 통합터미널에는 총 저장용량 3만 7,500kl 규모의 연료 저장탱크

26) <https://www.oncindonesia.com/news/20260624192433-4-745504/negara-arab-ini-tawarkan-bantuan-untuk-bangun-ikn>

27)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6750/corporate-affairs/el-nusa-to-build-fuel-terminal-supporting-ikn-energy-supply>

12기와 7,500DWT급 부두, 통합 배관망 및 탱크로리 적재시설이 구축될 예정. 정부는 동칼리만탄과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개발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경제성장 및 신수도 개발 기반 확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OIKN, 신수도 개발 경제 전환 목표 추진<sup>28)</sup>(Antara, 6/29)

- 신수도청(OIKN)은 신수도 개발이 국가 경제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칼리만탄주와 칼리만탄 전역,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신수도청(OIKN) Ma Amalia 기획·토지담당 부청장은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신수도(OIKN)와 인도네시아 경제 슈퍼허브(SEN)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
- 분석 결과, 동칼리만탄주의 경제는 신수도 건설 이전보다 약 3.7% 성장해 다른 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또한 신수도와 인접한 Penajam Paser Utara군의 경제도 약 19.9% 성장하며 동칼리만탄주의 다른 시·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8) <https://sumsel.antaranews.com/berita/820287/dorita-sebut-pembangunan-ikn-diarahkan-menuju-transformasi-ekonomi>

## □ 중점 프로젝트 동향

###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비) 약 9,658억원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955, 샵하우스 387)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8월 예상)

○ (주요동향) 대우건설, 투자심의 부의조건 조율중

###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주주 및 Offtaker) 등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연60만톤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사업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26년 센터목표) 본FS 지원 및 실사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 (주요동향) 대아이앤씨, KIND 자금지원 FS 공모 신청

###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포르법인), Beijing Liando (중국계 디벨로퍼)
- (사 업 비) 612백만불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1,694헥타르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GS 발주 DD자료 KIND 공동 분석중

### ④ 까얀1 수력발전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사 선정 완료



##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계속 (변동 없음)

##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7월 1-2주차)

- 네트워킹 6건 : SG코퍼레이션, 하이테크Eng · 무역보험공사 · 건설공제조합, 한국항공우주산업 · STX, 수출입은행 · 유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현대자동차, Pine Energy
- 사업개발 9건 : 롯데건설, 코린도그룹, 대우건설 · 시나르마스랜드, 국토관 · K-컨소시엄 · MRTJ · 호주대사관, GS건설, GS건설 · Muns, PT GTI · Site Planning, 코린도 · 다올자산운용, 자바베카
- 대관업무 1건 : 대사관 · K-마루